

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보 도 자 료	보고서명	초고령사회 다층노후소득을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편
	문의	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(02-3771-08271, zeuss@kcmi.re.kr)

-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퇴직연금을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핵심 축으로 재정립
 - 2024년 12월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,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공적 연금만으로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에 직면
 -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연금은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의무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기능해야 함
- 퇴직연금은 원리금보장상품 편중과 낮은 장기수익률이 제도 목적을 제약
 - 2025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.4조원으로 2020년 말 255.5조원 대비 5년간 96.2% 증가하였으나,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여전히 75.4%에 달하고 10년 평균 수익률은 2.64%에 머물러 실질 노후소득 증식 기능이 제한
 - 중도누수가 제도적으로 허용되며, 전체 퇴직자의 연금수령 비중도 16.5%에 불과하여 적립금이 안정적인 은퇴소득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취약
- 퇴직연금 운용은 원리금보장 중심의 저축 관행에서 장기·분산투자 중심의 연금자산 운용 원칙으로 전환되어야 함
 - 2025년 전체 퇴직연금 수익률은 6.5%였으나 TDF 수익률은 13.7%로 두 배 이상 높아 장기 자산배분의 중요성을 시사
 - 연금자산은 투자시계가 긴 자금인 만큼 자산별·지역별 분산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글로벌 투자포트폴리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함
- 현행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선택을 강요하는 opt-in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실질적인 디폴트제도로 전면 개편될 필요
 -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53.3조원까지 성장했으나 안정형 비중이 85.4%에 달해 전체 수익률은 3.69%에 그침

-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구조보다 비선택자의 자산이 TDF·TRF 등 장기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 자동 배분되는 opt-out 구조가 강화되어야 함
-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의 핵심은 적립금 집합 자체가 아니라 독립적 의사결정과 수탁자 책임이 작동하는 지배구조 구축
- OECD·IOPS 원칙과 해외사례는 독립성, 전문성, 이해상충 관리, 투명한 공시와 감독, 기금 간 실질적 경쟁이 기금형 제도의 성패를 좌우함을 시사
 - 2026년 노사정 공동선언이 제시한 공공형·비영리 연합형·금융기관 개방형은 개별 유형이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 목적에 맞추어 설계되어야 함
 - 공공형은 가입률과 수급권, 비영리 연합형은 지속성과 확장성, 금융기관 개방형은 위험조정 장기수익률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의 성공 여부가 평가되어야 함
- 기금형 도입과 함께 장기간 병존할 계약형 퇴직연금의 운용 효율화가 병행되어야 함
- DB형에서는 적립금운용위원회와 IPS 운용체계를 실질화하고 ALM 기반 자산배분과 OCIO 일임운용을 확대할 필요
 - DC형에서는 디폴트옵션을 TDF·TRF 중심의 단순하고 명확한 대표상품 체계로 개편하여 가입자의 무관심으로 인한 저수익 방치를 완화
- 퇴직연금제도 개편은 금융기관의 역할과 경쟁구조를 장기 운용성과 중심으로 전환시킬 것으로 전망
- 향후 퇴직연금시장의 경쟁은 상품 판매나 단기 수익률보다 지배구조, 자산배분, 위험관리, 비용, 장기 운용성과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
 -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운용업은 단순 상품제공기관에서 가입자의 연금자산에 대해 실질적인 운용책임을 부담하는 수탁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
 - 전문적 자산배분과 수탁자책임을 통해 적립금이 안정적인 연금급여로 연결될 때 퇴직연금은 초고령사회에서 국민연금의 한계를 보완하는 견고한 연금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음